

삶에 지친 당신에게 전하는 밥 한 그릇의 위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구해줘, 밥

김준영 지음

“할머니들은 산과 들에 나는 거의 모든 풀의 쓰임을 안다. 들풀로만 아는 질경이로 나물국을 끓일 줄 아는 것이 그분들이다. 한국의 나물이란 게 그렇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풀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민족은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그냥 보면 논밭둑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디에도 쓸모없는 잡초처럼 보이는 풀들이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에 띄면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으로 바뀌어 밥상에 오른다.”(본문 중에서)



책의 목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삶이 지치게 할 때, 분노를 잡아썹싸 먹다’, ‘팔자를 닦으며 운명을 지지고 부다’, ‘그리움을 녹여 먹다’ 등... 삶을 음식과 비유한 표현들이 절묘하다. 예상했던 대로 저자는 일상과 맞닿은 소재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방송작가다.

김준영은 21년 차 방송작가다. ‘화제집중’, ‘PD수첩’ 등 공중파 내로라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세상 쓴맛단맛을 봤다. 하지만 오랜 작가생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번 아웃이 왔다. 그럴 때 떠오른 게 ‘한국인의 밥상’을 하며 맛봤던 음식과 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신간 ‘구해줘, 밥’은 이렇듯 ‘한국인의 밥상’에서 찾은 단짠단짠 인생의 맛을 담고 있다.

“송이 박나무 무침, 고기 무자고 볶음, 갓김치 멸치 육젓, 삼치 겹질 유비끼, 토란탕, 메밀반대기, 거지탕...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대로 투박하게 적힌 음식 들 속에는 한겨울 눈 사냥을 그리워하는 70대 산골 할아버지의 눈물도, 선이 넘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예쁘다, 예쁘다”라고 속삭이던 차매 앓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손길도, 깊은 산골 처녀 농군과 결혼한 군인 아저씨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연애담도 녹아 있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됐다.”

저자는 일이나 사람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음식으로 치유한 경험을 풀어낸다. 육하고 분노가 치솟는 날에는 6·25전쟁터였던 양구의 나물골 할머니를 떠올린다. 향긋한 굴취쌈과 흑돼지구이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제와도 같다.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으로 곡성 토란죽을 꼽는다. 곡성은 토란 최대 산지다. 도시에 살다 선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딸과 어머니의 애담은 이야기가 모티브다. 딸은 차매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토란죽을 끓인다. 어린 시절 몸이 약하던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골잘 끓여주던 음식이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어머니는 그날은 딸을 알아본다. 선 넘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딸 참 예쁘다. 정말 예쁘다”라면서 보석 만지듯 한다.

완도 여서도 어느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귀탕은 진미다. 칠순이 넘은 나

이에도 물질을 하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귀탕에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다.

활영 당시 할머니는 수십 10미터 아래에서 돌미역을 베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돌미역으로 풍성한 상까지 차려주었다. 또한 돌미역은 끓일수록 더 진국이 우러나, 한번 끓일 때 술에 한가득 끓여주면 먹으면 좋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에는 가족 나물(참나무 어린잎)을 추천한다. 경상도 어느 산골에서 만난 할머니는 데쳐 먹고 찹쌀풀 발라 튀겨 먹는 법을 이야기해줬다. 돌아가는 길에 비닐 봉지 가득 싸주기까지 한다.

저자는 이러한 만남을 매개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깨닫는다. 나와 다른 환경,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 웃고 그들을 따지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배울 수 있다는 의미다.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따뜻한 한 끼의 밥이다. 거기에겐 진심과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배우 최불암은 추천사에서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한국인의 밥상’에는 다양한 인생의 사연과 맛이 담겨 있다. 토란죽을 앞에 둔 모녀(왼쪽)와 곰장어구이를 먹고 있는 사람들.



‘한국인의 밥상’에는 다양한 인생의 사연과 맛이 담겨 있다. 토란죽을 앞에 둔 모녀(왼쪽)와 곰장어구이를 먹고 있는 사람들.

때 ‘밥’은 이 세상이 건네는 위로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생존의 정글을 헤쳐 나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책이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 셜리 클럽

박서련 지음

스무 살 셜리는 호주 할머니 ‘셜리’들의 클럽에 가입을 신청한다. 셜리는 한국인 젊은 여성이다. 그가 셜리 클럽에 가입한 것은 그녀의 영어식 이름이 ‘셜리’이기 때문이다. 단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놀랍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어진다.

예상대로 ‘셜리’ 클럽은 셜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다. 셜리라는 이름이 예전에 유행한 탓에 멤버들 중에는 유독 할머니가 많다. 할머니들은 셜리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여러 어려움에서 도와 준다. 이렇듯 많은 셜리들은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재미와 음식을 매개로 우정을 나눈다. 지난 2015년 실천문학으로 데뷔해 장편 ‘체공녀 강주룡’으로 제23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박서련의 장편 ‘더 셜리 클럽’의 내용이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29번으로 출간된 작품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게 하는 요소인 연대를 이야기한다.

주말이면 셜리(셜리)는 웨어하우스를 나와 멤버들을 거닌다. 축제 기간에 우연히 만난 S는 목소리가 이색적이다. 셜리는 S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아가 혼혈인지 이민자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음식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기억한다. 그러나 몇 차례 만남 이후 셜리는 S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느 정도 알고 가까워졌으며,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즈음 별안간 S가 사라진다. 연락도 없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증발해 버린 것이다.

박준 시인은 추천사에서 “‘더 셜리 클럽’을 읽는 것은 이름 하나를 새로 얻는 일 같습니다. 아울러 나와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기쁨과 같은 슬픔들을 느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평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이재갑·강양구 지음

21세기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가 우리 삶을 위협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감염병 한복판에서 코로나19를 분석하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전망한 책이 발간됐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는 현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워왔다. 이들이 펴낸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곳의 깊숙한 면면을 섬세하고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바이러스가 취약한 곳을 골라서 일부러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그 사회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곳은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반면, 취약한 곳은 막아내기는커녕 그것이 파리를 틀고 번식할 기회를 제공하죠.”(이재갑)

“결국 그런 악한 고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사회를 둘러싼 이야기가 공허해지지 않겠소. 그런데 정작 그런 부분보다는 “언택트, 언택트” 하면서 유행만 좇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강양구)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재갑 교수가 정책 자문에 힘쓰며 전국 치료 현장을 누볐던 100일 간의 숨가쁜 기록을 들려준다. 2부와 3부에서는 두 저자의 심도 있는 대담이 이어진다. 바이러스 감염을 시작으로 신천지, 요양시설, 콜센터 등 숨겨져 있는 그늘뿐 아니라 혐오와 편견에 관한 부분까지 아우른다.

<생각의 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혜석의 말

나혜석 지음, 조일동 엮음

여기 한 여성이 있다. 촉망받는 화가이자 작가였지만 시대는 그에게 아내,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라고 강요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신 여성이 붙었고, 그의 삶은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였던 나혜석. 그녀의 글을 묶은 ‘나혜석의 말’이 출간됐다.

나혜석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일본에서 서양 유화를 배워 국내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1918년에는 조흔과 가부장제 등 여성에게 불리한 관습을 비판한 소설 ‘경희’를 발표하며 작가로서도 남다른 재능을 선보였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파가운 시선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와 맞서 싸웠다. 책에는 19세 때 쓴 ‘이상적 부인’을 비롯해 첫딸을 임신해 낳고 돌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모(母) 된 김상기’, 남편 김우영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기까지의 개인적인 생활과 심경을 서술한 ‘이혼 고백서’ 등 14편을 실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더 단단히 살아갈 길’, ‘나를 잊고 어찌 살 수 있느냐’, ‘여자도 다 같은 사람이외다’, ‘살려 가지 말고 죽으려 가자’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나혜석의 글들은 우리에게 모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개인’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하며, 각각은 관념적인 이해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전한다.

<이디북스·1만4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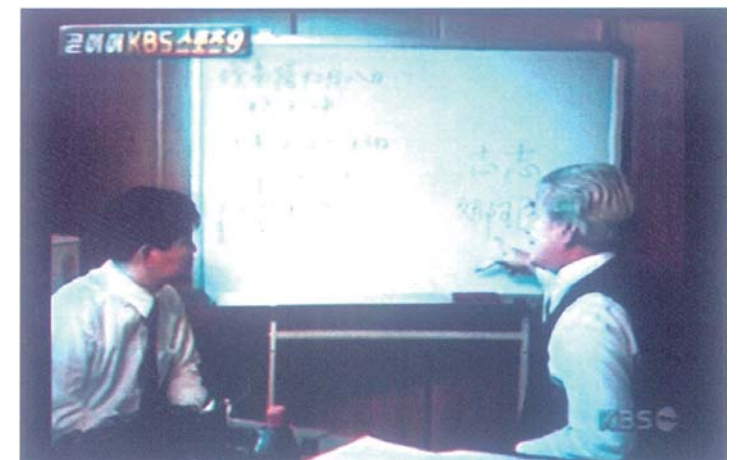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 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